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한 항의성명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귀하

2013년 12월 30일

포괄종교법인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대표역원·대회의장(총회장) 요시다 타카시

저희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는, 12월26일에 아베총리가 행한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유는 이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내각총리대신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정당화의 논리여하와 관계없이, 이전에 일본이 침략행위를 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고, 결과적으로 전후 일본이 쌓아 올려온 화해의 노력과 그 성과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대일본제국」시대의 전사자를 제사 지내는 종교시설이며, 침략전쟁의 지도자들을 「신(神)」으로 제사 지내는 특별한 신사입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관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개정을 정치목표로 하는 아베총리가 굳이 이 시기에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하는 행위는, 결과로서 과거의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그 역사를 미화하려 하는 국수주의적 행위로 간주되어집니다. 이 평가는 필연적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나 야스쿠니신사의 A급전범합사(合祀:죽은 사람의 영혼을 한곳에 모아 제사 지내는 것)문제등과 결부되면서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피해국인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넘어서 미국과 영국이라는 「연합국」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일본에의 경계심을 조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아베총리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한 비판이 중국이나 한국과 함께 영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EU, ASEN, 유대인 단체등으로 부터 끊어올라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베총리는 참배후의 담화(26일)에서, 「중국과 한국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큰 피해를 받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야스쿠니참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서의 참배강행은 그들의 마음을 짓밟고, 화해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 분명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라는 아베총리의 담화는 도저히, 국제사회에서 이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 전쟁에서의 반성으로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고, 제9조에 의해서 전쟁을 포기하고, 가까운 여러 나라들과 화해를 지향하는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베총리에 의한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이와 같은 일본국 헌법 체제하에 축적되어 온 전후의 「화해의 유산」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현저한 국익의 상실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총리가, 예전부터 국가신도의 종교시설이며, 전사자를 영령(英靈)으로서 제사 지내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정교분리라고 하는 헌법원칙을 크게 짓밟고, 국민의 신교(信敎)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이후 전사자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어온 국가신도의 종교시설입니다. 이 야스쿠니신사는 현재에도 이전의 아시아 태평양전쟁을 「성전(聖戰)」이라고 주장하고, 전몰자들을 영령으로 모시고 그들의 공적등을 계속해서 알리고 표창하는 특이한 종교 시설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국 헌법에 있어서의 제20조3항(정교분리의 원칙)은, 이 전사자들을 제사 지내는 야스쿠니신사의 국가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침략전쟁에 있어서 깨달은 무시무시한 정신적인 폭력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민은 신도와 같은 특정의 종교를 강요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종교를 믿는 자유, 즉 신교(信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정을 맡고 있는 자들은, 야스쿠니신사라고 하는 종교 시설에서 행해지는 특정의 종교행위에 대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충실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반복해서 항의하는 가운데 지적해온 것과 같습니다.

아베총리는 야스쿠니신사참배의 목적을 「영령(英靈)에 정권1년의 행보와, 두번 다시 전쟁이라고 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재난에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는 시대를 창조하려는 결의를 전하기 위해서」(26일총리담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내각총리대신의 입장에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아베총리는 지금까지 정권1년의 행보 가운데서 일련의 「해석개헌」적 여러정책을 추진하고,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참배목적으로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일련의 강경한 정치자세와 행동과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은, 그 목적의 진정한 의미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의심의 감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품게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들은 아베총리가 헌법개정을 목표로 해서 정권운영을 행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채결하고, 일본국헌법체제를 환골탈태하는 것에 의해서 일본국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모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과 함께, 12월26일에 행하여진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 강하게, 소리를 크게 내어, 항의 합니다.